



“우리 춤이 멋지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리질러!”

패기 넘치는 '소리질러'

도내 고교생 10여명 구성
팀명은 관객들의 반응과
관심 즉흥적으로 유도하고자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출전

'도이스토리'를 모티브로
장난감을 연상케한 춤 선배
팀은 중등부문 대상 수상

"저희 공연을 보고 '우와!'라
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면 주저
하지 말고, 즐겁고 행복한 만큼
크게 소리질러 화답해 주세요"



지난 1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에서 중등부문 대상을 차지한 '소리질러(su wa li zilla)'는 춤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한국문화나눔협의회(곽민중 대표 이사장)소속 댄스 팀이다.

장하나 리더(전주성심여고·3학년)를 비롯해 김지수(임주고·3학년), 박민주(호남제일고·3학년), 김아영(군산중앙여고·3학년), 백주홍(전주예고·2학년), 유원준(신흥고·2학년), 유현호(영생고·2학년), 최도연(전일고·2학년), 백승훈(삼례고·2학년), 신연수(근영여고·1학년), 박하영(김제여고·1학년) 등 도내 고등학교 10여 명으로 구성된 소리질러는 관객들의 반응과 관심을 즉흥적으로 유도하고자 팀명을 이 같이 지었다고 한다.

이번 대회에서 이들이 선보인 공연은 영화 '도이스토리'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인형과 장난감이 소녀가 잠든 사이 비밀스럽게 살아나서 춤추고 노래한다는 내용을 그렸다. 작품은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지 않은 상상 속 장면들을 스트리트댄스 퍼포먼스에

연어낸다. 그들은 "우리 공연으로 하여금 관객들이 희열은 물론 순수했던 동심의 세계로 잠시나마 돌아가 마음의 정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팀의 최종목표이자 '소리질러'가 춤추는 이유이다"라고 말한다.

소리질러에는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어 작은 의견마찰도 있을 법 하지만 분위기가 훈훈하다. 이에 대해 팀원들은 "한 때는 생각이 차이로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매일 서너 시간씩 연습하고 춤과 관련된 히로애락을 같이 겪다보니 이전 제법 각자의 개성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동화돼 간다"고 한다.

팀원 간의 이런 우애는 공연에 고스란히 배어낸다. "소리질러는 비보이·힙합·걸스힙합·팝핀 등 스트리트댄스의 모든 장르를 소화하며, 화려로운 춤을 보여 줄 수 있어요. 그 중 한 치의 오차 없이 동작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팝핀, 일명 칼군무는 가히 독보적입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낸다.

이들 팀의 실력은 해외서 먼저 알아봤다. 이들은 올해 7월경 미국 LA에서 열린 세계댄스대회(World of Dance·

WOD)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WOD는 세계 27개국 81개팀, 10만 여명의 댄서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대규모 댄스 경연대회이다. 대회에서는 4위에 준하는 베스트 코스튬상을 수상했다. 또 전주 그린웨이 환경축제 플래시몹, 전국댄스 경연대회 대문산에서 놀자!, 신촌 댄스 경연대회 댄스배틀, 통일 대한민국 전국청소년 퍼포먼스 대회, 서울 동국대 나란다 경연대회 등 다수의 무대에 올랐으며 춤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겐 익히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U-20 월드컵 전주 홍보영상에 비보이 '라스트포원'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이들은 "더 많은 공연으로 무대에 서고 싶지만 환경이 워낙 척박해 버스킹 공연조차 요원한 상황이다"며 이 분야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질러'와 안무가 박용기(전주니아아트스토리 댄스학원) 선생님은 춤이 마냥 좋아 지금껏 버려온 자생력으로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며 비상을 꿈꾼다"고 한다.

/정해은 기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 muju 무주군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덕유산 상고대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무주에서 겨울과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을 건너 새 하얀 겨울이 내렸습니다.

하늘을 닮아 곱고 물을 닮아 깨끗한 곳 무주에서 겨울과 만나세요.

가슴 벅찬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무주군관광안내 063)324-2114, 322-2905, http://tour.muju.go.kr
무주반디랜드 063)324-1188 | 덕유산레저바이크텔 063)322-2882
무주덕유산리조트 063)322-9000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063)322-3174

